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아버지 주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55. 하나님의 크신 사랑 .....
♠ 공동기도 .....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어리석고 미숙한 우리들을 부르시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몸은 제멋대로 움직이는 세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철든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온전히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맡기신 일이 크든 작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이기심의 장례를 치르며 살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존경의 다리를 세우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이 머무는 곳 어디에서나 폭력과 미움과 불신이 물러가도록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주십시오. 우리를 벗어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마9:13 .....
♠ 교 독 문 .....	72. 아버지 주일 .....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대표기도 .....	I. 유경순 집사 II. 윤석철 장로
사도신경 .....	다함께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304. 어머니의 넓은 사랑 .....
성경봉독 .....	I. 엡 6:1-3 .....
	II. 룿1:14-17 .....
	김중수 권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I. 내리사랑 .....
	최인환 선생
	II. 뿌리와 날개 .....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471. 십자가 그늘 밑에 .....	다함께
헌금봉헌 .....<찬양 : 이은자 집사/한선희 집사>.....	다함께
♠ 봉 헌 송 .....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값없이 받은 사랑 값없이 돌려주며 사십시오. 뿌리 없이 떠도는 이들의 품이 되어주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확신의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주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깊고 따스한 사랑에 잠겨들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에스겔 통독 강좌(22)	신명기 강해(1)
기도: 김인걸 권사/김애경 권사(16)	기도 : 박애순 집사

<b>다음 주 예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윤정덕 장로	이증자 집사

<b>5월</b>	영접위원	윤석철	김준호	김종훈	김애경	박효선	유경순
	헌금위원	강인식	이호원	김근중	김정숙	배삼순	이순정

## 거미들의 지극한 자식 사랑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1999년 미아가 되거나 버려진 아이들이 무려 9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IMF 위기를 겪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부모들이 임시보호소에 ‘잠시’ 맡겨놓은 아이들로부터 미혼모들이 양육을 포기하여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갓난아기들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온통 버림받은 아이들로 울먹이고 있다. 이렇고도 곧 선진국이 되리라고 어깨를 펴 수 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거미’ 하면 거미줄을 쳐놓고 가만히 앉아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종류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세상에 사는 거미들의 거의 절반은 거미줄을 치지 않고 자유스럽게 먹이를 사냥하는 거미들이다.

다음은 독거미를 연구하는 어느 생물학자가 자신의 경험을 적은 이야기다. 그는 땅 속에 굴을 파고 납작한 흙덩이를 맨홀 뚜껑처럼 덮고 들어앉아 있다 가 굴 가까이 지나가는 먹이를 짹싸게 낚아채는 거미를 연구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독거미 암컷 한 마리를 채집했다. 그 거미 암컷들이 흔히 그렇듯이 그 암컷도 등 가득히 새끼들을 오그랑오그랑 업고 있었다. 나중에 실험실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알코올 표본을 만들기로 했다. 새끼들을 털어내고 우선 어미부터 알코올에 떨어뜨렸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어미가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이번엔 새끼들을 알코올에 쏟아 부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미가 홀연 다리를 벌려 새끼들을 차례로 끌어안더라는 것이다. 어미는 그렇게 새끼들을 품안에 꼭 안은 채 서서히 죽어갔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로 염낭거미를 따를 자 있으랴. 염낭거미 암컷은 번식기가 되면 나뭇잎을 말아 작은 두루주머니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앉아 알을 낳는다. 새끼들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을 만들었지만 그들을 먹일 일이 큰 일이다. 그래서 염낭거미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자식들에게 먹인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며 성장한다.

우리들 대부분이 징그럽다고 피하는 거미들의 자식 사랑이 이처럼 지극한데 어찌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식을 내동댕이치는 미물이 되었는가. 사실 자연계를 통틀어 인간만큼 끔찍하게 자식을 돌보는 동물은 없다. 코끼리가 무려 22개월 동안 임신해 있는 것에 비하면 아홉 달은 그리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몸집에 비하면 유난히 긴 시간이다. 갓 태어났을 때 긴수염고래 새끼 몸

무게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기를 만들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뱃속에 품는 까닭이 무엇일까.

태어난 후 자립능력이 없기로는 인간이 단연 으뜸이다. 망아지는 어미 몸을 빠져나오기 무섭게 툭툭 털고 일어선다. 처음에는 좀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기 어려워하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 바람을 가르다. 우리 아기들이 겨우 몸을 뒤집을 무렵이면 원숭이 새끼들은 뛰어다닌다. 같은 영장류라도 우리만큼 무기력한 아기를 낳는 동물은 없다.

실제로 인간은 신경계가 미완성인 채로 태어난다. 신경세포들은 대체로 갖추고 태어나지만 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온갖 회로망을 만드는 일은 대부분 태어난 후 약 3년 동안에 이루어진다. 엄마의 자궁 속에서 미리 모든 회로망을 만들고 나와 주어진 세계에 막무가내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야 할 세계의 자극에 맞도록 효율적인 회로망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일본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회로망 만들기가 사춘기에도 일어난다고 한다.

아무리 자식이 미덥지 않아 보이더라도 우리네 부모님들은 좀 별난 듯싶다. 시집 장가 다 보낸 자식들까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평생을 두고 돌보시는 것이다. 물론 예전에 비해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다 큰 자식들이 여전히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서 김치를 가져다 먹는다. 요즘 젊은이들의 씹씹이가 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 박봉을 가지고도 한 푼 두 푼 모아 집을 장만하셨는데 요즘 젊은 부부들의 내 집 마련은 날이 갈수록 더 어렵기만 하다. 절약이 몸에 배어 여유가 생겨도 실컷 써보지도 못하는 부모들은 급할 때마다 달려와 마치 맡겨놓은 돈 찾아가듯 너무도 쉽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을 끝내 물리치지 못한다.

자식이 대학만 가면 독립시킨다던 미국 부모들도 요즘엔 다르다.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호황이라 떠들지만 모두가 다 잘사는 것은 아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젊은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 복지에 신경쓰던 시대를 살았던 부모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경제적 자립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요즘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식에게 집을 사주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 집에 들어와 함께 사는 자식들도 있다. 그런 자식들을 부모는 그저 말없이 끌어안는다.

(최재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중에서)

## ■ 마/음/으/로/읽/는/글

### 효(孝)

그 동안 우린, 효의 의미를  
너무 크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효를 그냥, 품앗이라 부릅시다.  
품앗이란, 받은 만큼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20여 년 키웠으니  
부모님 말년 20년을 내가 모시고,  
부모님이 나의 똥을 2-3년 받아 주셨으니  
부모님 말년에 2-3년 똥을 받아 드립니다.

우주의 순환처럼, 효를 품앗이라 합시다.  
품앗이의 신뢰를 더도 덜도 없이  
지켜내는 사람은 평균의 사람이며  
품앗이마저 저버리면 동물입니다.  
(박해조)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방현복 이부방 윤정덕 구성실 한상익 정영선 방문성  
 박혜경 김중수 이순정 오진훈 노순옥 김근중 정옥영 임창선 김순복  
 전영웅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윤미경 김지윤 김지호 임승동 백해숙  
 임고운 노용래 조병무 송양진 박재실 김재흥 최희영 박홍엽 김용원  
 염혜영 박권동

###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유증희 이재문 윤성종 김윤정 문금석 김명순 최윤희  
 정두리 김남중 오복순 전영규 김경수 이희균 김영한 김종문 지명주  
 조항신 박경원 이은자 임 영 정경례 서재홍 박현우 노미향 박범희

###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정숙 김승현 김수진 김창원 정지은 김재흥 최희영  
 윤정덕 최희영 윤정덕 구성실 전희찬 이인섭 김순복 황원순 장재영  
 김재영 박옥식 문금석 김홍기 김미순 조옥분 박정숙 무명1

### 생일감사헌금:

조윤기 염혜영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 합 속 회	유 영 남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김 명 순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문 복 순
시 은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오 성 희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장 혜 숙
빌 립 보	최 중 원	이 형 숙		이 정 은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이 영 옥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김 시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혜 권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항 미	
두 란 노	안 중 일	정 현 주	교 회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어버이주일** : 뿌리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먼저 우리를 지으신 하늘의 아버지/어머니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땅의 아버지/어머니께 감사합니다.
2. **월례회** : 예배 후 각 선교회의 월례회가 있습니다. 특히 제3남선교회는 체육대회 준비모임으로 모입니다.
3. **한마음체육대회** : 5월 16일 주일은 제7회 청과 한마음 체육대회로 모입니다. 예년처럼 인덕대학 강당에서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교회가 낯선 친지와 친구들을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4. **청년부 성경공부** : 창세기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서가족을 위한> 창세기 해설서인 「보시니 참 좋았다」가 교재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5. **신앙실천** :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라도록 교양과 사랑의 물을 뿌려주신 스승들을 기억하며, 편지 한 통이라도 써보십시오. 진정한 감사는 우리 영혼의 자양분입니다.

\*헌화 - 이동천 (이 숙 권사님 2주기 추도)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